

에리하라 고야스 지장

에리하라 고개 언덕에 있는 차밭 뒤에는 와즈카초에서 오래전부터 여행의 안전과 순산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지장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여행자와 어린이의 수호신인데, 고야스 지장은 특히 순산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가마쿠라 시대인 1267년에 제작된 것으로, 광배 아래 양옆에 ‘석가여래 열반 후 2천여 년’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상의 제작년을 석가모니(부처, 고타마 싯다르타)가 열반한 후부터 경과한 연수로 나타내는 불멸기년명이 새겨진 석불은 매우 드문데, 가까운 곳에 있는 미륵마애불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장을 둘러싼 석감은 후에 설치된 것으로, 그 옆에는 작은 지장상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고야스 지장 앞 길은 한때 야마시로국과 오미국(현재 교토부와 시가현)을 연결하는 도로의 일부였는데, 아마도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길 도중에 고야스 지장에게 참배를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야스 지장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근처 사람들도 참배를 하러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매년 8월 24일 지조본에는 지장 앞에서 법요 의식이 거행됩니다.

오시는 길

‘와즈카나가이(和束長井)’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약 20분 녹색 펜스 안 저수조와 은색 일본어로 된 이정표가 표식입니다.